

에토스의 수사학*

하병학**

주제분류 수사학, 윤리학, 의사소통이론

주요어 갈등, 의사소통, 수사학,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요약문

오늘날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는 대단한 갈등이 지배하고 있다.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의사소통방식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 갈등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의사소통에 대해 수사학의 에토스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득, 소통의 학문으로서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으로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에토스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에토스는 설득함에 있어서 화자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또는 적어도 갖춘 것으로 보여야 할 성품인데, 이에 대해 실천적 지혜, 덕, 호의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수사학>에서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 의미도 혼란스럽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그의 다른 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덕, 탁월성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화자가 에토스 관점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1. 갈등과 소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전쟁을 치른 지 60년이 넘었지만 그 여파가 아직도 심각하여 우리사회에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타협과 공존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상대를 오직 좌빨, 종북세력, 그리고 보수꼴통으로 색칠해버리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허울뿐이듯 각종의 주장과 논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허구담론, 대리논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정권만 잡으려고, 선거에 당선만 되려고 안보팔이, 국민팔이, 상대방 색칠하기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군 관계자는 안보, 국방력에 가장 저해되는 방위산업 비리, 군대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옹호하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하면서도 논거로는 언제나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 도시개발, 원자력 폐기장, 먹거리, 교육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해도 불법시위라며 물대포로 진압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며 가스통을 들고 나온다. 역사교과서 검증 방식에 대한 문제마저 역사 담론, 교육 담론이 아니라 정치 담론으로 바꾸어버리고, 심지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도 정치 논리를 내세운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멸절한 어린 자식들이 죽음에 내몰리어 그 사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고 단식하는 가족들 앞에서 조롱과 저주의 폭식투쟁을 하는 괴물 같은 국민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재이다.

빈부격차, 계층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지만, 권력집단,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한다. 그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강자독식주의가 팽배하여 인간다운 삶,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채 오직 '경제'만 우리 귀와 뇌를 지배하고 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도 친정부·기업화 되어 '대학 경영',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등을 외치고 있다. 권력의 지배담론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특수목적교육을 받은 나머지 푸르디푸른 낭만과 비판적인 대항담론의 청년정신을 잃어버린 채, '아픈 청춘', '흔들리는 영혼', '열정 폐이'로 전락하여 스펙 쌓기와 취업목적의 활동,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

혹자는 박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통해 탄핵되고 현정부는 다시 민주주의를 쫓 피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리사회의 갈등이 해소되리라 보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와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언제나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오히려 말이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치인들은 말을 통해 정적에 대해 국민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의 막말, 품격 없는 말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혐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주막집 주도 푸념 들을 시간 없다"와 같은 여성비하의 말, "살인범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TK 정서",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시험 통과 못해서..." 등의 인신공격의 말이 현재 한국 정치지도자 말의 수준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 인성과도 직결된다.

갈등은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적, 사회적 갈등과 한 개인의 관념, 욕구, 의무, 환경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적, 심리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R. 다렌도르프가 주장했듯, 한 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나쁜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갈등은 사회변동의 초석이 되고 여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

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근거 있는 갈등, 이성적인 논쟁, 문제해결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자신의 주장(의견)을 수정하는 열린 대화·토론이나 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을 갖지 못한 사회통합은 오히려 입 다물고 권력자가 정한 대의와 원칙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반대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허락된 방향과 크기를 넘지 말라는 반민주적 지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갈등 발생과 그 해결 방식이 폭력적이나 이성적이나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한 공동체의 갈등과 관련한 민주성의 핵심은 대화, 소통, 설득 등의 언어행위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근본적일수록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질문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며, 그 공동체의 사회 규범과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된다. 이는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함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즉 논증하라는 요구이므로 그들에게 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문제제기에 대한 억압과 배제, 즉 폭력이다.2)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문제제기를 처음 제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다수인데, 기존의 공동체 운영 방식에서 평온한 삶이 보장되었던 다수에게 이러한 문제제기, 질문은 병리적이거나 공동체의 토대를 흔드는 도전이고, 따라서 사회적·윤리적으로 위험한 치유 대상으

1) 일반적으로 갈등의 구성적 요소로 둘 이상의 당사자, 상호의존성, 의사소통의 내재를 꼽고 있다. 최해진, 『갈등의 구조와 전략』, 두남출판사, 2004.

2) M. 푸코는 담론의 생산과정에서 배제의 체계를 금지, 분할 및 배척, 그리고 진위의 대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새길, 1993, 13-21쪽.)

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당연함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과 설명, 그리고 공고화이다. 이는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는 공론의 과정에서 그 합당한 근거를 밝히고 의문을 제시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하는 언어 행위이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온 것은 그 사회에서 통념·상식·양식·규범, 심지어 진리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을 근거로 다른 것을 논증할 수는 있어도 이것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연함에 대한 의문은 공론을 통해 그 사회 근간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단지 반복, 숙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시대정신으로 재구성하고 당연한 문제에 대해 생기 있게 적용함으로써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로 성숙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다.³⁾

셋째, 질문과 대답, 이에 대해 반박과 반론, 제3의 주장과 질문 등이 뒤따르는 논증행위들의 갈등이다. 즉 배제와 확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역동적인 대화와 변화로서 갈등이 진화하며, 당연하다고 간주되었던 사회적 규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논증행위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되는 주장들이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에 경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들도 당시에는 새로운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현재의 다수성과 일반성이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멈춰 있을 뿐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갈등의 이성적 해결은 현재 통상적 관례에 대한 지지자들의 다수성을 넘어 더 좋은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

3) 수사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수사학(epideictic rhetoric)라고 부른다.

및 염원과 미래 구성원들까지 청중으로 포괄하는 설득적인 논증행위에 달려 있다.⁴⁾

갈등의 정도에 따라 합의가 대단히 힘든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갈등 당사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힘들 것 같은 염려스러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갈등이 강해질수록, 의문의 힘이 강해질수록 당연시했던 공동체의 규범, 상식이 더 명료화되며, 갈등 당사자들과 청중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성실성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⁵⁾ 예컨대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강도 높은 갈등은 진정한 보수와 자기 기득권만 확대하려는 사이비 보수, 그리고 진정한 진보와 배타적이고 유아독존적인 사이비 진보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상적 담론 공동체에서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는 의문의 힘으로 인해 그 본질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담론과정을 방해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하게 된다. 정리하면, 공동체적 문제제기와 갈등은 공동체의 토대에 대한 공론적 검토, 확인, 개선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의 가능성은 논증행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소통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ی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소통능력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소통능력이다. 이처럼 지성인이라면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할

4) Ch. 페렐만은 논증행위의 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편청중’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보편청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허병화, 「소통의 수사학과 보편청중」, 『수사학』, 한국수사학회, 23집, 2015.

5) J. 크로스화이트는 갈등의 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미 강도 높은 논증이 파괴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리석은 수 있는 명백한 경우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또한 아주 명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명료성(clarity)을 얻는 방법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 및 서로에 대해 성실성(integrity)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141쪽.)

텐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사회의 소통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수사학에서 말하는 에토스, 즉 화자의 성품, 인격, 인성, 윤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공적 담론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화자는 어떤 에토스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에토스는 수사학을 학문으로 정립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를 해명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와 우리사회에서는 ‘윤리’와 ‘인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에서 ‘연구윤리’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어처구니없게도 ‘규정’과 ‘징계’ 및 ‘처벌’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징계와 처벌은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는 근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서는 법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처벌을 강행하고자 할 때 ‘윤리’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한편, 몇 년 전 중등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인성도 경쟁력이다’라는 말도 듣고는 한다. 그런데 인성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인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영어 등 외국어 어떤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소크라테스가 문제제기 했듯 덕이 교육가능한지, 인성이 측정가능한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없는 인성은 무엇인지, 누가 무슨 이유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의 에토스

2.1 설득수단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구성원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어떤 절대 권력자나 맹목적인 신앙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비록 그 시대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지만- 그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 경쟁하는 주장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주장을 그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설득의 학문으로서 수사학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아테네 시민들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 즉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수사학을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아테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지만, 오늘날에는 구성원들이 많아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이 큰 차이이다. 공론의 장과 참여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설득의 중요성은 달라진 바 없다.

고대 수사학을 논할 때 언제나 언급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수단에서 출발해 보자.

“연설을 통해 나타나는 설득 수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설득 수단은 화자의 성품(ethos)에 근거하든가,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pathos)을 갖도록 만드는 데 근거하든가, 또는 끝으로 말(logos) 자체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증명이나 유사 증명을 통해 설득에 도달한다.”⁶⁾

6)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1995, I, 2, 1356a. (참조: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Ch. Rapp, [Aristoteles Werke, Ba. 4], Akademie Verlag, Berlin, 2002,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출판부, 2015,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7.)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에토스 번역의 문제이다. 논자는 이를 ‘성품’으로 번역했지만, 예컨대 품성, 성격, 인격, 윤리성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⁷⁾ 어쨌든 설득함에 있어서 화자가 청자에게 신뢰를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신뢰는 로고스와 에토스에 의해 생성된다. 언기 위해 갖추어야 할, 또는 적어도 갖춘 것으로 보여야 할 화자의 내적 특성과 태도로 이해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성’과도 부합할 것 같다.

논자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인간의 모든 능력과 관련된 것이자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저의 총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사회의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책인 설득, 논증행위, 소통 등의 언어행위에 있어서 어떤 면이 결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의 언어행위에 대해 이 세 관점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언어행위가 미녀사냥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닌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잘못된 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로고스, 밀접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한다는 점에서 에토스, 그 표현을 살펴 봐야 하겠지만 청중들에게 중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파토스 관점에서 부당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에토스에 집중하고자 한다.

2.2 에토스와 로고스

먼저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 대해 했던 비판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은 『고르기아스』이다. 스스로 수사학에 정통하고, 훌륭한 연설가이자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연설가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고르기아스에게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란

7) 에토스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번역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재원, 『에토스와 에토스들: 고대 수사학의 에토스를 위한 기고』, 『독일어문학, 제74집』, 2016. 165쪽.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이에 대해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이란 설득과 관련되며, 이때 설득이란 대규모 집회장에서 군중을 상대로 하며 정의와 불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⁸⁾

소크라테스는 수사학만 아니라 수학 등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것들은 모두 설득과 관련되는데, 후자는 참된 지식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사학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르기아스의 의견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비판은 연설가들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갖추었는지 또는 아닌지 하는 로고스와 관련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설득만 하려 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하는 에토스와 관련된다. 이 두 관점은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도 대중이 보기에 그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⁹⁾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동시에 등장한다.¹⁰⁾ 후자에 대한 비판을 더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보기에 수사학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림짐작에 능하고 조금은 용감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재주를 타고난 혼의 할동인 것 같소. 나는 그것을 한마디로 아첨이라고 부르다오.”¹¹⁾

플라톤은 아첨을 치장술로 묘사하면서 요리술이 의술로 치장한 것처럼 수사학은 정치학의 한 분야의 모방, 속임수라는 것이다.

“아첨은 가장 좋은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당장의 쾌

8) 플라톤, 『고르기아스』, (플라톤, 『고르기아스/프로타고라스』,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4. 454b.

9) 위의 글, 459d.

10) 이를 플라톤은 다른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도 매력적이니 연설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화자의 이성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아는 것이다.”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8, 250e.)

11) 플라톤, 『고르기아스』, 463b.

락을 미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척하지요. 이를테면 요리술은 의술로 분장하고는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 척해요.”¹²⁾

그런데 수사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살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플라톤은 지식을 말하면서 지식의 종류, 즉 올바른 것과 불의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확연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연설가는 자신이 연설할 사안에 대해 참된 지식을 먼저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증명을 다루는 학문과 통념(endoxa), 논증 및 설득을 다루는 학문을 확연히 구별한다. 전자에는 논리학, 기하학, 산술학, 자연학 등이 속하는 반면, 후자에는 수사학이 속한다. 이러한 차이를 지적한 이유는 플라톤과는 달리 정의, 불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로고스가 아니라 에토스와 관련되기 때문인데,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3 에토스의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윤리학, 정치학과 함께 실천학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수사학에서 로고스만이 아니라 에토스를 강조한다.

“말이 화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설득은 성품을 통해 성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덕이 있는(올곧은, 반듯한, tugendhaft, epieikeis) 사람을 더 기꺼이 더 신속하게 신뢰하며, 특히 확실성이 없고 의심이 지배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감은 말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것이지 화자의 성품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서 생겨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품은 이처럼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반면에, 몇몇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론에서 주장하듯 화자의 덕

이 있음이 신뢰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¹³⁾

위의 서술을 살펴보면, 설득에서 에토스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할지라도 왜 에토스가 등가적, 대등적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는지 의문이다. 확실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의심이 지배하는 경우 그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 문장에서는 로고스·파토스와 비교하여 에토스에 최상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개인성이 있는 경우에도 에토스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면 『수사학』에서 수사적 논증이 아니라 성품이 주로 다루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성품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많지 않은 에토스에 대한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에토스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덕(arete)과¹⁴⁾ 함께 『수사학』 II에서는 실천적 지혜(통찰력, 신중함, 분별, Einsicht, phronesis)와 호의(선의, Wohlwollen, eunoia)를 제시한다.

화자 자신이 신뢰를 받는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를 하는 데에는 - 증명을 제외하고 - 아주 많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천적 지혜와 덕과 호의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거나 조언하는 일과 관련하여 실망이 생겨나는 것은 이 세 요소가 실행되지 못했거나 그 중 어느 한 요소가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자가 실천적 지혜가 없어서 바른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거나, 바른 실천적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실천적 지혜도 있고 덕도 있지만 호의적이지 않아서 좀 더 나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조언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것 외 다른 근거는

13) Aristoteles, 위의 글, 1, 2, 1356a.

14) 한석환은 ‘덕이 있음(epieikeis)과 ‘덕’(arete)를 동의어로 이해한다.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365쪽.

12) 위의 글, 464d.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청자에게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실천적 지혜가 있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은 덕에 대한 탐구에서 취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어떤 일정한 특성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은 동일한 수단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의와 우애에 대해서는 감정에 관한 장에서 다를 것이다.¹⁵⁾

과연 이것만이 화자의 성품과 연관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골치 아픈 것은 과연 증명을 빼고 화자의 말에 신뢰가 발생하거나 불신이 발생하는 데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의 의문을 하나씩 짚어보자.

1) 실천적 지혜는 바른 견해를 피력하는 능력으로, 어떤 사안에서의 최선인 것에 대한 앎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를 지성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의 중요한 성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로고스와 에토스는 각각 논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2) 실천적 지혜가 덕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한다. 덕은 악함의 반대 또는 진실함으로 서술되어 있다. 덕은 분명 에토스에 해당하지만, 과연 덕에는 어떠한 것들이 속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3) 설득 상대자에 대한 화자의 마음으로서 호의가 화자의 에토스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호의를 감정과 연관시킨다는 점도 풀어야 한다.

4) 신뢰가 발생하는 것은 화자가 이러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아니라 - 물론 지닌다면 더 좋겠지만, 지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는 서술이다. 즉 어떤 경우 화자가 그렇게 보여 신뢰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위선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이 밝혀진다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지 않는가

15) Aristoteles, 위의 글, II, 1, 1378a.

하는 의문이다. 이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언어행위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진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 설득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갖추어야 할 성품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성품을 주목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군주에 대해 강조한 것처럼 일종의 기만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공한 설득행위에서 차후에 위선이 발견되면 그 화자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화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도 단절될 것이다. 그래서 설득행위의 단기적 성공을 넘어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성품에 진실성이 요구된다.

일단 정리해 보면, 호의를 파토스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에 기대어, 로고스는 논증과 논증을 나타내는 언어만을, 에토스는 그러한 논증을 하는 사람의 지적인 능력도 포괄하는 성품으로 이해하자. 즉 실천적 지혜는 지적 판단을 내리는 성품과 관련되고, 이를 청자와 상황에 맞게 적합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언어로 논증을 구성하는 능력이 로고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능력은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덕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갖추어야 할 화자 자신과 관련된 덕목으로, 실천적 지혜는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최선의 것에 대한 앎으로, 호의는 청자와 청중에 대한 태도로 이해된다. 이 중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호의이고,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덕과 실천적 지혜이다. 『수사학』에서 덕에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는 곳은 I권 9장이다.

“덕은 선(좋은)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많고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 모든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덕의 요소들에는 정의, 용기, 절제, 포부가 큼(megalopsychia), 통이 큼(megaloprepeia), 후함(elcutheriste), 온화함,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가 속한다. 그러나 덕이란 선행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덕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

들은 정의로운 사람과 용기 있는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 왜냐하면 전쟁 시에는 용기가, 평화 시에는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¹⁶⁾

이에 덧붙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을 간략히 설명한다. 정의란 법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덕이고, 용기는 위험한 상황에서 훌륭한 행위를 행하는 덕이며, 절제는 사랑의 쾌락과 관련하여 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덕이다. 그리고 후함은 돈과 관련된 선행이며, 포부가 큰 것은 큰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덕이며, 통이 큰 것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기를 말한다. 또한 실천적 지혜는 사유의 덕으로서 행복과 관련하여 선과 악에 대해 좋은 숙고를 해내는 덕이라는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덕목을 제시했지만, 그 속에 앞에서 대등하게 제시했던 실천적 지혜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로서의 성품을 넘어 ‘선행을 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을 살펴봐야 한다.

3.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덕과 실천적 지혜

3.1 탁월성으로서의 덕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실천적 지혜, 덕, 호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수사학』이 아니라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¹⁸⁾ 이 책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

16) Aristoteles, 위의 글, I, 9. 1366a-b.

17) Aristoteles, 위의 글, I, 9. 1366b.

면, 1권은 행복, 2-4권은 용기, 절제, 후함, 통이 큼, 포부가 큼, 명예심, 온화, 진실성, 재치, 수치 등 성품의 덕, 5권에서는 정의를 다룬다. 6권은 지적인 덕, 특히 실천적 지혜, 7권은 자제하지 못함과 쾌락, 8, 9권은 우애, 10권은 다시 쾌락과 행복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덕과 실천적 지혜는 2-5권, 그리고 6권에서 다루어진다.¹⁹⁾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사학』에서 간략하게 제시되었던 덕목들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상세히 다루는 덕목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에서 덕을 크게 성품의 덕과 사유의 덕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덕(arete)이란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도덕적·윤리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이 아니라 탁월성을 뜻한다. 그래서 『수사학』에서 언급했던 덕과 실천적 지혜는 성품(ethike)의 탁월성과 사유(dianoetike)의 탁월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면 앞의 장에서 던졌던 물음에 대해서도 해답을 구하게 된다.

1) 탁월성으로서의 덕이란 화자 내면의 인간 됨됨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실행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2) 『수사학』 I권 9장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덕은 실천적 지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덕이고, II권, I장의 인용문에서 실천적 지혜와 호의와 대등하게 제시된 덕은 좁은 의미의 덕, 즉 성품의 탁월성이다.

3) 앞에서 우리는 신뢰를 얻기 위해 화자는 세 가지 덕목을 갖춘 것으

18) 윤리학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 윤리학』, 『탁월성과 경함에 대하여』 네 권이 언급되는데, 그 중 뒤의 두 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작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의 두 개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아 ‘공동적인 책’이라고 불려진다. (크리스토퍼 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입문』, 김요한 옮김, 서광사, 2011, 23쪽.)

1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계홍/이창우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이 번역서와 이 논문에서의 번역 중 가장 큰 차이는 ‘eleutheriotes’을 전자에서 ‘자유인다움’으로, 후자에서 ‘후함’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덕은 돈과 관련된 되어 낭비와 인색 사이의 중용을 뜻하는데, ‘자유인다움’은 너무 포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로 보여야 한다는 서술에서 위선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던졌다. 이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한 답변은 성품의 탁월성은 습관(ethos)을 통해, 사유의 탁월성은 가르침(didaskalia)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이다.²⁰⁾ 즉 가르침과 습관을 통해 탁월성을 갖지 못한 화자는 결코 지속적인 설득에 도달하지 못하며, 가르침을 통하지 않은 우연히 좋은 결정이나 습관을 통해 내재화 되지 않은 위선은 덕, 탁월성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덕의 하나인 호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에서 다루는 우애에서 언급되는데, 다만 우애는 친구 간의 호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적인 호의가 우애이며, 궁극적으로 호의가 우애의 시초라고 말한다.²¹⁾

『수사학』에서 제시되었던 덕목들을 중심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품성의 덕의 핵심은 중용,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음이다. 즉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 절제는 무절제와 목적감음 사이, 후함은 낭비와 인색 사이, 통이 큰 품위 없음과 췌췌함 사이, 포부가 큰 허영심과 소심함 사이, 온화함은 격분(다혈, 분노조절 장애)과 화낼 줄 모름 사이 등이다.²²⁾

덧붙여, 공적인 언어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성품의 덕 중에 가장 독특하게 보이는 정의(dikaioyne)를 살펴보자. 다른 성품들은 한 개인의 내면적·심적 상태(예: 온화함)이거나 다른 개인에 대한 태도(후함)인 데 비해, 정의는 보다 사회적이어서 다른 성품의 탁월함과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정의로운 사람’처럼 한 개인에게 정의로움을 부가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법 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성품의 탁월함은 지나침과 모자람

20)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제2권, 1103a.

21)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1155b, 1167a.

22)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제3~4권, 1115a~1126b.

사이의 중용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특이하다.²³⁾ 이러한 특이점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완전한 탁월성”, “탁월성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²⁴⁾ 규정한 이유이다. 그것은 바로 정의란 “하나의 단일한 방식[법]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행복과 행복의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를 완전한 것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탁월성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 속한 고유한 것에서는 탁월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으니까.”²⁵⁾

즉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른 성품의 탁월성과 정의를 확연히 구별하고 있다. 다른 것과 달리 정의는 타인, 사회에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실천적 지혜

이제 이해하기 가장 까다로운 실천적 지혜에 대해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학문적 인식(episteme), 기예(techné), 철학적 지혜(sophia), 직관적인 이성(nous), 실천적 지혜로 구분한다. 학문적 인식은 그 원리가 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진리를 증명하는 것과 관련된 반면, 실천적 지혜란 그 원리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증명될 수 없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최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라고 규정한다.²⁶⁾ 이러한 실천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잘 숙고

23) 크리스토퍼 원, 위의 책, 154쪽.

2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29b.

25) 위와 같은 곳.

26)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0a

함'을 제시한다.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잘 숙고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한다는 뜻이다. (...) 그렇다면 남는 것은 실천적 지혜가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성 상태로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제작은 제작[자체]과 다른 목적을 갖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의 목적은 바로 잘 행위한다는 것 자체이니까. 우리가 페리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분변해 낼 줄 알았기 때문이다.”²⁷⁾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지혜와 관련된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점이며, 또한 그것이 오직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제기되는 물음은 실천적 지혜와 성품의 탁월성에 있는 덕목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과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습득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 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성품의 탁월성 없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²⁸⁾ 탁월성은 목적을 결정하지만, 실천적 지혜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예컨대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의 행위는 실천적 지혜에서 출발할 수 없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잘 숙고함’인데, 이것은 합리적 추론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잘 숙고함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숙고

란 필연적인 진리와 관련된 학문적 인식과는 다른 지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필연적 진리 인식과 증명에 대한 배움은 보편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만, 실천적 지혜의 배움은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모두를 알아야 한다.³⁰⁾ 다른 하나는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숙고를 하는데, 이때는 잘 숙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잘 숙고함이란 “좋은 것을 성취하게 하는 올바른”이다.³¹⁾ 유감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적 인식과는 달리 실천적 지혜의 습득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례들을 통한 학습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다.

4. 에토스와 소통

이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좋은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화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들을 살펴보았다. 실천적 지혜, 호의, 정의, 진실함, 용기, 절제, 온화 등의 덕목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후함, 통이 큼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한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날에도 완벽하거나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추구할 만한 가치와 덕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왔고, 그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객관적이고 연역적인 체계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성품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확정적이며 종결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요컨대 시간과 공간, 문화와 환경을 떠나 인간이, 화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 덕목을 확정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고,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27)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0a-b.

28)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4b.

29)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5a.

30)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1b.

31)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글, 1142a.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어떤 덕목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의 선후, 위계 등을 체계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어진 현실상황에서는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와 부딪칠 수 있고, 그 실행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해도 부딪칠 수 있다. 누구는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하고, 누구는 잘못된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정의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고를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화자는 논증행위를 잘 할 수 있다는 방식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어떤 덕목을 추구해야 할지 합의할 수 있기 위해 오히려 논증행위능력, 소통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타자와 갈등을 조율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에토스 관점에서 토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덕목들과 소통능력은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소통이란 대단히 협력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에토스의 강조는 자연스럽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협력적 소통을 지향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즉 민주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대화자와 청중에게 호의를 가지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다수의 이익, 나아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논자가 추가하고 싶은 화자의 덕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도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는 능력, 나의 주장이 실행될 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 대한 고려, 내가 사용하는 객관적인 표현에도 주관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조심성, 더 많은 사람, 미래 후손들까지 청중으로 삼으려는 태도, 설득이 실패하더라도 논증행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의식, 소통이란 자신의 삶의 형식을 넘어 다른 삶의 형식을 만나 윤리적으로 응대하는 계기라는 이해, 나와 적대적인 사람과도 대화를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 등이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에토스가 삶과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로고스 및 파토스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사고, 판단, 가치관, 감정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특히 화자의 에토스는 바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청자도 마찬가지로 가지라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으로, H.-G. 가다머는 선이해(Vorverständnis), 또는 선판단(Vorurteil)으로 표현하였다. 에토스가 형이상학적 전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터전으로 하면,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출발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을 정당성의 토대로 삼지 않고 청자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청자 역시 화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때 화자의 삶의 형식과 청자의 삶의 형식이 만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에토스로서의 삶의 형식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가다머는 화자와 청자의 상이한 이해지평의 융합이라고,³²⁾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의 일치라고 말하였으며,³³⁾ 논자는 소통이라고 표현한다.

5. 나오면서

앞에서 에토스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언어행위, 특히 지

32) H.-G. 가다머, 『진리와 방법』, 2. 임흥배 옮김, 문학동네, 2012, 192~193쪽.

33) L.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1994, 19쪽.

도층의 공적 언어행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불의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옳다고 말할 때 그 잘못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있다. “나는 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며, 내가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러한 설득의 목적과 청중에 대한 태도를 출발점으로 할 때,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말의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의 비폭력성, 설득의 평화지향성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언어행위를 대표하는 것은 좌와 우의 갈등에서 비롯된 색깔하기일 것이다. 누군가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폭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멸의 길을 부정하고 말의 민주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말의 실천방식이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자기부정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 국회의원은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한다. 따라서 정치 경쟁자에 대한 절멸의 언어행위는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절멸의 언어행위가 된다.

둘째, 더 많은 사람들을 청중으로 삼으려는 태도, 나아가 함께 존재함에 있어 구성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다.³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국민일보〉, 2015. 12. 31.)고 말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중에서 배제한다는, 함께 존재함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며, 따라서 에토스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셋째, 논증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이다. 청중을 목적으로 대하지

34) J. 크로스하이트, 위의 글, 196쪽: “보편청중을 향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명령과, ‘모든 사람’의 청중을 인식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인식이다.”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언어행위가 우리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자신의 말에 동의한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고, 책임지는 것을 신뢰라고 한다. 크로스하이트에 따르면 주장이란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주장”이다.³⁵⁾ 수사학적으로 보면, 특히 에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논증행위를 하는 화자는 청중의 삶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 한 마디로 청중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한 개인에게 결코 많이 부여되지 않았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다.

35) J. 크로스하이트, 위의 글, 63쪽.

참고문헌

- 가다머, H.-G., 『진리와 방법』, 2. 임홍배 옮김, 문학동네, 2012.
- 비트겐슈타인, L.,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출판부, 2015.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7.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 원, 크리스토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입문』, 김요한 옮김, 서광사, 2011.
- 이재원, 『에토스와 에토스들: 고대 수사학의 에토스를 위한 기고』, 『독일어 문학, 제74집』, 2016.
- 최해진, 『갈등의 구조와 전략』, 두남출판사, 2004.
- 크로스화이트, J.,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푸코, 미셸,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새길, 1993.
- 플라톤, 『고르기아스/프로타고라스』,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4.
-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8.
- 하병학, 『소통의 수사학과 보편청중』, 『수사학』, 한국수사학회, 23집, 2015.
-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2015.
-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1995.
-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Ch. Rapp, [*Aristoteles Werke*, Ba. 4], Akademie Verlag, Berlin, 2002.

Rhetoric of Ethos

Byung-Hak Ha (The Catholic Univ. of Korea)

Today, not only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Korean society is dominated by great conflicts. Although communication is emphasized by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it is not suggested as a total measure about what ability the speaker needs to communicate well. Wrong ways of communication are deepening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mmunication from the ethos perspective of rhetoric.

As a study of persuasion and communication, rhetoric emphasizes Logos, Etos, and Patos as a means of persuasion. Aristotle says that the most powerful means of persuasion is the ethos. Ethos is a character that should be equipped, or at least possessed, to gain confidence as a speaker in persuasion, phronesis, arete, eunoia. However, these three things are not covered in detail Aristotle's <rhetoric>, and their meaning is also confusing. This paper analyzes their concrete meaning. To this end, this essay compares with arete and phronesis presented in his other work, <Nicomachen Ethics>.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the virtues that the speaker should have from the viewpoint of the ethos as the intellectual in Korean society.

Key words: conflict, communication, rhetoric, ethos, Aristotle

에토스의 수사학 / 하병학

하병학 E-mail: speechact@catholic.ac.kr

투 고 일	2018년 01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1월 30일
계재 확정	2018년 02월 12일